

## [신약 속 미로 찾기]

### 다시 시작하라구요?

권준 목사 / 1998 / 페이지수: 1

예수님은 밤중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접근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몹시 혼동하여서 어떻게 이 늙은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유대인으로 관원으로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겸비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그러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아주 간단한 교육 과정 한두 개 거치면 하늘나라 입성 자격을 갖추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찾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무의미하며, 다시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밟아야 한다면 누가 좋다고 예수님을 믿을 것일까? 그런데도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이 거듭났노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우리는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라어의 “거듭나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위로부터”(from above)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again)라는 의미이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곧장 “다시”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미는 ‘위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다. 즉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나서 자라고 교육 받고, 경력을 쌓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등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전혀 무관하며, 단 한가지의 조건은 하늘로부터 나와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물과 성령이다. 이 물과 성령의 의미는 에스겔 36:25~27에서 보여 지는 정결하게 하는 씻김과 새 영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려면, 물로 씻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지으려는 성향, 즉 더러움을 없애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거듭남, 중생, 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았는가?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 이들이 의아해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가 이해한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거듭나야 구원받는다 고 말하지는 않았는가? 다음 번 전도할 때는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보자. 그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좀 더 예수님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까지의 모든 삶에 관계없이 새로 태어남 하나만으로 구원이 확정된다면 그들 마음속에 지고 다니던 커다란 죄의 짐들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까?

\* 출처 : 온누리신문